달라이라마, 신년 메시지 '자비행'

1월 1일 유튜브로 공개돼
한국어 자막판도 전해져
이타행 · 배려의 삶 강조
한국불자와 언택트법회도

박영빈 객원기자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공식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지난 1월 1일, 유튜브를 통해 사전에 녹화된 공식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개, 한국어 자막판도 함께 공개됐다.

영어로 신년 메시지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먼저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관저에서 녹화된 영상에서 달라이라마는 1월 1일 이에 대해 "우리의 몸은 또 한해 늙어가지만, 마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새해 인사가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달라이라마의 신년메시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하여 달라이라마는 "새해 첫 날, 제일 먼저 지난 한 해를 보람차게 잘 보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살펴 보며,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이타심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보냈다면 새해 첫 날인 오늘부터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내 육신과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 자비롭게 살 것이다. 보다 의미 있게 살 것이다.' 이것이 새해를 맞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새해를 맞아 파티나 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과음으로 새해를 망치지 말라는 농담을 섞어 "새해에는 보다 평화롭고 온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덕담을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매년 이리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 했다.

달라이라마의 새해인사에 대해 세계 여러 불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 불자는 "나의 새해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지 달라이라마께서 정해주셨다.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다짐을 댓글로 달아 많은 호응을 받았다.

러시아의 한 불자도 "올 한해도 더욱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는 한해가 되길 서원한다"며 다짐을 굳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새 해 첫 온라인 법회로 1월 5일부터 3일간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을 대표로 한 한국인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반야심경〉에 대한 법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이번 온라인 법회서는 한국인 불자 900여 명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동시통역 법문을 들었다.

갠지스 계곡서 고대 불교사원 터 발견

발굴팀장 "당나라 현장 스님 저서에도 등장"

인도 갠지스 계곡의 언덕 꼭대기에서 고대 불교 사원이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당나라 초기 고승으로서 우리나라에선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현장(玄奘) 스님의 책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도 등장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즈(The Hindustan time)는 1월 4일(현지시간) "인도 동부의 비하르(Bihar)주(州) 라키사라이(Lakhisarai) 지역에 위치한 랄파하리(Lal Pahari)에서 갠지스 계곡에선 최초로 언덕 위 불교 사원이 발견됐다"며 "예술 · 문화 · 청소년 관련 부처인 비하르 유산 개발 협회(the Bihar Heritage Development Society)와 서부 벵갈의 산티니케탄에 위치한 비스바-바가티 대학(the Visva-Bharati University)의 공동 협력 중 발견된 이 발견은 대승불교의 거대 중심지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발굴팀장인 비스바-바가티 대학의 애닐 쿠마르(Anil Kumar) 박사는 "그동안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불교 사원이 발견됐지만,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불교 사원은 처음"이라며 "대승불교 신자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하기 위해 번잡한 도시에서 떨어진 이곳에 사원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사원의 이름은 '스리마다르마비하릭 마얍히크수상하샤'(Srimaddharmaviharik aryabhiksusanghasya)였다는 게 쿠마르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수도원의 발견은 현장 스님이 쓴 여행록의 내용을 증명한다"며 "현장 스님은 이 지역에 수많은 불교 사원이 있었으며, 심지어 부처님도 이곳에 머무르곤 했다"고 했다.


인도 동부의 비하르(Bihar)주(州) 라키사라이(Lakhisarai) 지역에 위치한 랄 파하리(Lal Pahari)에서 갠지스 계곡에선 최초로 언덕 위 불교 사원이 발견됐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이어 "이 지역은 '크리밀라'(Krimil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그 이름은 불교 문헌에서도 언급된다"며 "인도 팔라 제국(Pala period) 당시 이 지역은 거대한 무역지대이자, 통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괄목할 만한 점은 저명한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엄(Alexander Cunningham)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크리밀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을 발견했다' 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당장 이 유적지에 대한 정교한 보존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간 풍화작용 이후 열악한 기상조건에 노출돼 발굴된 구조물들이 자연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게 주정부의 설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코로나 19 예방 새해 첫 참배 규칙 발표

日불교계 공동 메시지
'분산해 참배해 주세요'

새해에 들어서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종교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년의 소망을 기원하며 사찰과 신사를 참배하는 '하츠모데(初詣)'라는 전통풍습 때문이다. 새해를 맞아 귀성객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참배가 많은 점도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일본 불교계와 신토(神道)계가 함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발표,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츄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양 종교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주요 보도했다.

이번 메시지 발표에 함께 한 미카즈키 다이조 사가(滋賀)현 지사는 "보통 하츠모데를 위해 유명한 고찰이나 신사를 찾아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급적 지역 사찰이나 신사 등으로 분산하여 참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월 참배전통인 하츠모데를 앞두고 규칙을 발표하는 일본 불교계 인사들.

사가현 불교회 회장인 다케다 엔류 스님도 "참배시 행동양식을 알게 쉽게 정리하여 사찰측으로서도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엔류 스님은 천년고찰이자 천태종 본산의 한곳인 사이쿄지(西教寺)의 관수(貫首, 한국의 방장)으로 연간 200만명 가까이 몰리는 하츠모데에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신토측 대표인 스미요시대사(日吉大社)의 마부치 나오키 궁사(宮司)역시 "전통적으로 정월이라 함은 입춘까지로 말해진다. 그 기간 동안의 참배는 모두 하츠모데"라며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기를 맞추어 참배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미요시 대사는 오사카에 소재한 대형 신사로 전국에 2,300개의 분사가 산재해 있다.

이번 공동메시지에선 일본어 '카키쿠케코(かきくけこ)'를 앞머리로 하는 5가지의 참배규칙이 발표됐다.

'1. 변함없는 기원을 위해(카)', '2. 거리는 유지하고(키)', '3. 입은 굳게(쿠)', '4. 경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케)', '5. 혼잡은 피하자(코)' 로 정해진 참배규칙은 각 사찰과 신사에 포스터로 인쇄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일본 불교계는 하츠모데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세우고 있는 한편, 코로나 19의 예방과 소외계층 구호를 위한 기도회와 모금활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나고야시의 사암연합회는 구호금 123만엔(한화 약 1,300만원)을 시에 전달하였고, 미에(三重)현에서는 정월을 맞이해 각 사찰의 주지들이 모여 특별기도회를 봉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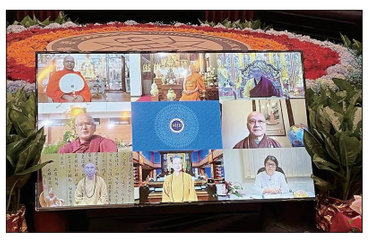
'국경 없는' 불교도, 코로나19 극복 '합심'

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 온라인서 진행

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가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1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고려해 남중국 선전(深圳)시에 주요 거점을 설정하고, 사상 첫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해당 매체는 "중국과 영국, 미얀마,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불교도들이 온라인에 모였다"며 "전 세계 불자들에게 코로나19에 맞서 인류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중국불교협회의 부회장인 윈슌(Yin Shun)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은 세계적인 재앙"이라며 "남중국해 지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 세계 불교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TN이 보도한 언택트 회의.

주최 측은 "이번 원탁회의는 자애와 친절,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불교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통합, 계승하려는 의미"라며 "전 세계의 위기 속 민생과 사회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불교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법사교육원 학생 모집 안내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요일 및 시간	전형방법
전법사교육원	00명	① 불교기초교리 ② 불교의식	1년(2학기)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서류심사

2.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1. 1. 4(월) ~ 2021. 2. 8(월)	①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 ※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 입학원서: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www.taego.kr)	사진 2매 (3×4cm)
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개별통보	

3. 응시자격

구 분	항 목	비 고
자격사항	①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 ②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 ③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자	

4. 입학 및 개강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학식 및 개강	2021. 3. 4. (목). 오전 11시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입학식 후 개강

5. 등록금: 50만원(1학기)
※ 문의처: 총무원 교무부(02-739-3450)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